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사모하며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담대하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5년 2월 8일 (토) 제 2003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2025년 더 폭력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50개국 점점 더 살인, 불법 구금, 납치, 재산 파괴의 위협에 직면

지난해 어느 시점, 다니엘은 기독교인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신앙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던 모임을 중단했다. 아라비아 반도의 가난한 나라 예멘에서의 일상은 지나치게 위험해졌다. 현재 10년째 이어지는 내전 중인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니엘(보안을 위해 가명 사용)과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점차 고립되어 가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저는 이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외로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멘, 수단, 소말리아, 미얀마와 같은 나라에서 내전과 치명적인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유혈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집 없이 떠돌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었다. 이 같은 적대 행위는 지역 교회를 약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표된 오픈도어(Open Doors)의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WWL)에 따르면 202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증가했다고 한다. 50개국 중 박해가 가장 심각한 곳들 가운데 29개국에서 폭력의 강도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예멘은 올해 WWL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명목상 후티(Houthi) 반군과 중앙 정부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10년간의 내전 때문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이 통제권을 차지하려 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약화된 국가 정부와 후티의 권력 증가는 3,4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 집단을 취약하게 만들고 가정 교회를 폐쇄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도 교회의 상황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와 ‘신성모독’ 혐의로 구금했다. 오픈도어가 보고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신앙 때문에 구금되기도 하였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짓 비난으로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구금되었다. 폭력의 위협 외에도, 기독교인들은 배교품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모스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계, 음식, 의료 지원,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자원이 차단되고 있다. 후티는 나라의 항구를 봉쇄하여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암시장에서의 거래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소말리아에서는 이슬람 무장 세력 및 알카에다 계열 단체인 알샤바브(Al-Shabab)가 기독교인 상인들을 현장에서 살해해 왔다. 그러나 공동체와 가족 구성원 또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배신할 수 있으며,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사망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인구의 8%가 기독교인인데, 2024년보다 순위에서 4단계 상승해 13위에 올랐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약 여섯 개의 소수 민족 정당에 속해 있다. 카친(Kachin) 지역에서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기독교인들이 ‘느린 집단 학살’로 묘사되는 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5년 WWL에서 각각 56위와 69위를 차지하며 상위 50개국에 들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박해가 전쟁과 정교회 내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다. 2024년 정부가 러시아 정교회를 금지한 후 수많은 교회가 폐쇄되었다.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는 러시아군과 연관된 단체들이 러시아 정교회 외의 교회들을 공격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코사크’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를 장악하고 교인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구의 러시아 정교회 통합을 반대했던 한 사제는 14년형을 선고받았다.



### 입냄새보다 더 독한

#### “너희 입에서 부패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입냄새가 심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참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심한 사람 말이다. 말 그대로 종말이 날아오는 것처럼 끔찍해서 살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치게 만드는 그런 입냄새 말이다. 아무리 예의를 차리며 행동하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해도 당장에 코가 문드러지고 속이 뒤집히는 것만 같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지 궁금하다. 하나님은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인 입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입에서 언제라도 그런 악취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에베소서 4:29에서 바울은 “너희 입에서 부패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말한다. “부패하

다”는 말은 햇볕에 쬐여 썩어가 는 죽은 동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런 약간의 역겨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생생한 단어이다. 입에서 나는 악취이자 썩은 살에서 올라오는 악취이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 즉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오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당신이 생생한 공포로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우려하는 이 타락한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부패하고 썩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비참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림으로써 무너뜨리는 이야기이다. 전혀 타이밍이나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푸른초장 한현종 목사 4면



신양칼럼 차용호 목사 8면

(9면으로 계속)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통부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제30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THE 30TH DISCIPLESHIP TRAINING LEADERS SEMINAR

**평신도를 깨운다**

대상: 담임목회자,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주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2025년 5월 5일(월) - 5월 10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등록 \$475 dmi.sarang.com | 조기등록 3월 10일 마감 (\$420) | 문의 714-635-3000

시론

대통령의 길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1월 20일(월)에 있었습니다. 너무 차가운 날씨로 인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에서 취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45대 대통령을 역임한 후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이번에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임기 후에 낙선했다가 재선에 성공하는 '징검다리집권' 대통령으로는 1892년에 재직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고개를 돌려 조국 대한민국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대통령 탄핵이 몰고 온 국가적인 갈등과 아픔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매듭지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1월 9일(목)에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00세라는 삶의 여정 중 백악관에서 4년, 주지사 관직에서 4년, 도합 8년을 제외한 92년의 세월 동안 같은 주택에서 삶을 영위하시다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신 청렴하고 겸손한 지도자의 마지막 떠나는 길이었습니니다.

한 사람은 새로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 사람은 탄핵의 과정을 통해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창조주에게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길을 걷는 3분의 대통령을 통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분들도 별 인생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심사와 뉴욕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형사재판의 승소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실력과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그들의 모습은 일반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택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 최대한 법을 사용해 위험도를 줄이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신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그들 모두 우리와 똑같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4년을 봉직하던 8년을 봉직하던 관계없이 그 직을 내려놓고 나면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창조주가 정한 늙음과 약함과 병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됨을 먼저 떠나가신 대통령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평범한 삶의 길로 인해 위축되지도 비굴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내일이면 어제 일하던 식당에서, 세탁소에서, 사업장에서 내 사랑하는 이들의 생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반복된 걸음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시시하여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큰 자(者)도 작은 자(者)도 진중하게 그리고 생명을 던지는 사랑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도 대통령에 못지 않는 책임감과 헌신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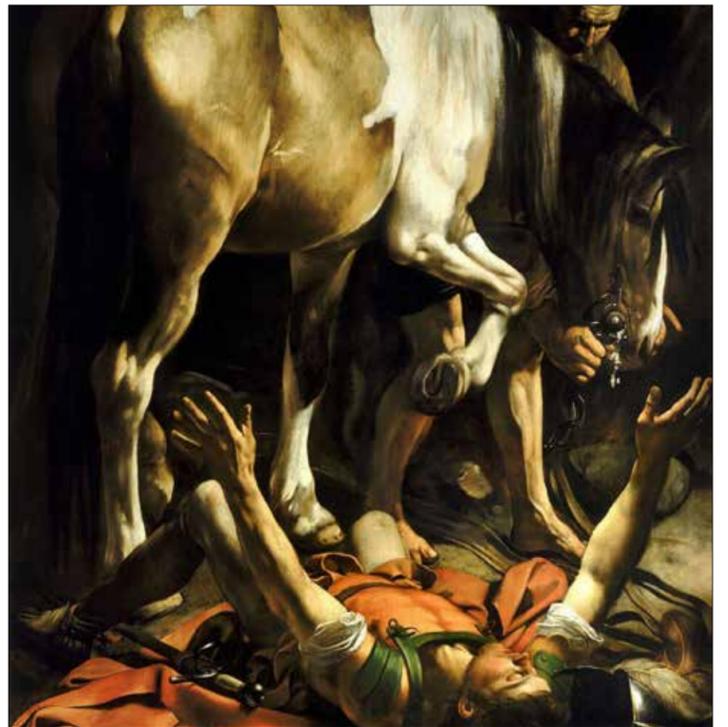
hankschoi@gmail.com

가장 아름다운 소식
고흐와 카라바조의 그림들을 보고

삶은 우리에게 벽차도록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운다는 목적 아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은 저 뒤로 밀려나 있는 듯 보이지만, 아름다움은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삶, 길과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요 14:6)께서 부여하신 구원의 나라를 느끼며 사는 삶,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누리고 추구하는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올 겨울 전시회를 통해 두 명의 거장을 만났다. 고흐(Vincent van Gogh)와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의 원작들을 감상하고 나니, 이성과 논리의 싸움에 지친 내 안의 상상력이 치유를 받는 듯했다. 다른 시대, 다른 화풍의 둘이 가진 공통점 중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는 보통의 사람들과 그의 행동들을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이다. 고흐는 의자에 앉아 슬픔에 잠긴 노인의 모습에서, 하루 종일 감자를 캐고 소박한 마음과 흙 묻은 손으로 감자를 찌서 먹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일상에서 만난 소박한 여인의 모습에서 사소함과 하찮음이 아닌 아름다움을 보았다. 카라바조 또한 성화를 의뢰받으면 일상에서 거리에서 만난 실제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모델로 성녀 마리아를, 로마의 행인들을, 소년 다윗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려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인물로 유명하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과 행동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었다.

내 인생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다. 27개월이 된 딸과 나는 시택에 남고, 남편이 면회도 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을 시절, 예배가 안식임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시절의 한 장면이다. 매일 혼자 드리는 철야예배가 부족해서 집 앞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했는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황량한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예배를 드려려고 가장 구석진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광경은, 나와 조금 떨어져 기도하며 앉아 있는 초라한 행색의 나이 많으신 여자분의 옆모습이었다. 비 맞은 싸구려 검은 패



딩에 손질되지 않은 머리와 급하게 나온 듯한 허름한 신발, 마치 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이 두려움과 떨림이 느껴지는 몸짓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능자 앞에 엎드린 겸손한 마음이 보인 적은 처음이었고, 그 아름다움의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누구에게도 환영 받거나 칭찬받지 못할 것 같은 외양의 사람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신비함이 마음 깊이 남아 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는 내면과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때로 매우 깊다. 고흐가 그린 석양의 버드나무, 화병에 꽂힌 들꽃들, 양파가 담긴 접시, 감자 먹는 사람의 주름진 얼굴 이면에는 보여지는 그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반대로는 고흐 자신의 자화상은 내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때로는 내면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 자세히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이 양면의 분별과 내면의 깊이에 대한 상상이 그림을 감상하는 것에 필요한 일이다.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마더 테레사의 주름진 얼굴 사진이 화려한 곡선의 여배우의 화

보보다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게 된다. 귀한 것은 늘 숨겨져 있다. 성경 속 예수님의 외모 또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사 53:2)이 없었다. 그는 실제로 "종"으로 묘사된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사 61:1; 벰전 2:9)은 그의 외모와는 상관이 없었으며, 그가 이 땅에서 받은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 처형이라는 결과를 생각할 때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아름다움의 근거로 제시한다.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이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종류의 아름다움은 확실하지 않다. 아름다움의 사전적인 정의를 거스를 뿐 아니라, 아름다움과는 대조되는 것을 아름답다고 우기고 있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이것이 신학적 미학의 시작이다. 이 아름다움의 독특한 점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계시한다는 것이다. 마치 빛의 존재가 온갖 색깔을 구분해서 인식하게 하듯이, 아름다움의 본질은 누구에게 평가 받거나 정의되거나 판단되지 않고 그저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다. (3면으로 계속)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 자녀가 하버드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직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세미나, 간증설교 문의: g2gmission@hotmail.com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사랑한인교회 (LA 한인타운)
사랑한인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부교역자와 행정간사를 청빙합니다.
파트타임 부교역자
파트타임 행정간사
자격: 전도사, 목사
믿음이 좋은 평신도도 가함
접수 및 문의: lovekrch@gmail.com

한의학을 활용한 선교 비전 세미나
초대 합니다
한의학을 활용한 선교를 위한 의료 전문인 선교 비전을 제시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료 전문인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그 외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3시(애너하임) / 2월 18일(화) 오후 3시(LA)
인사 및 격려사
주제 발표 1
주제 발표 2
주제 발표 3
질문과 답변 및 네트워킹
South Baylo University
홈페이지 https://southbaylo.edu
참가 문의 및 상담: (714)533-1495(Seon Kim)
\*특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입학 지원시 특별 장학금 지원
-주최: 사우스베일로 대학 -후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베델교육재단

### 입냄새보다 더 독한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아무리 그게 팩트라고 해도 지금은 그것을 이야기할 바른 때가 아니며, 더불어서 상대는 그 사실을 들어야 할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듣는 사람이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이들에게 해를 끼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은 지금 타락한 이야기를 하는가? 당신은 상대를 낙담시키거나 기운을 빼는 방식으로, 더 나쁘게는 그들을 모욕하거나 폄하하는 방식으로 말하는가? 모든 이야기가 팩트일 수 있겠지만, 현명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은, 지금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말할 때 뺨 굵는 구수한 냄새가 날까? 아니면 썩은 살의 악취가 풍길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가 아니면 반감을 불러일으키는가? 돕는가 아니면 해치는가? 축복하는가 아니면 저주하는가?

모든 부정적인 질타는 긍정적인 명령과 반대이다. 따라서 바울은 부패한 말을 피하고 대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좋은 말만” 하라고 한다. 사람들을 덕으로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말을 사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렌즈로 죄를 보도록 만들고, 삶의 과제를 감당하도록 성숙하게 만들도록 그들이 신앙의 길을 바로 견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로지 진실한 말, 도움이 되는 말, 적절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 당신의 말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능력과 책임을 이해하겠는가? 당신은 말로서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아니, 당신은 언제나 은혜가 되는 말만을 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의 말이 축복과 동의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신과의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당신과 헤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에 대해서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더 용기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당신과 대화를 마치는 순간 자신이 더 성화되었다고 느끼도록 하라. 그래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삶에서 질

질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도한다고 느낀다. 의심이 커지는 대신에 믿음이 강화되고 낙담하는 대신에 격려를 받는다. 당신이 화제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된다.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들이 더 나아가고 영적인 혜택을 얻도록 당신이 말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역사하라고 주신 능력이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은 성급한 말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유를 가져온다”(잠 12:18) 말한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누구나 조금은 더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이 시점에, 몇 분이라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혹시 시라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약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말은 고통을 주는가? 아니면 고통을 치유하는가? 죽음을 가져오는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생명을 가져오는 말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행여 입에서 부패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상황에 맞춰서 덕을 쌓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가?

by Tim Challies, TGC

### 목회단상

##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 했으나



한일철 목사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NC)

2016년에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했던 바울의 행적을 통해 순례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St. Peter’s Basilica)을 방문했을 때에는 온통 베드로에 관련된 구조물의 내용을 통해 카톨릭의 빛나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가보니 로마 바티칸에는 심할 정도로 베드로와 관련된 것으로 온통 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밖에는 큰 베드로 동상이 있었고, 대성당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광장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천국열쇠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대성당 안에는 베드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성당 안이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정말 온통 베드로에 관련된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주신 것으로 여겨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며 통치권을 가졌다는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고 있기에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내부 돔 주변에 2미터 되는 라틴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성당 이름도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부르며 베드로 시신 위에 대성당을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황들은 베드로의 계승자로서 교회의 머리인 동시에 세상의 통치권을 갖는다는 논리로 현재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 266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져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교황이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이란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출발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고백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의 대표자로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사도직에 대한 강조이지,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했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성당 한쪽에 열린 문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도대체 여긴 무슨 출입니까? 무슨 특별한 날인가?”라고 물어보았더니 몇 십 년 만에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그런데 베드로 대성당 문 한쪽으로 들어갈 때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니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무엇이냐고 하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 대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귀한 것들로 인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술적 작품성의 가치와 보화들의 가치를 합친다면 아마도 천문학적일텐데도 아무리 둘러봐도 정작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후 11세기 초에 교황 이노센트 3세와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대화를 했던 스토리가 생각났습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유럽 각 교회로부터 속속 도착하는 헌금주머니들을 보며 교황이 기분이 좋아 말했습니다. “보시오, 아퀴나스 선생,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있지 않소?”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성전미문에서 구걸하던 앓은뱅이 걸인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은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들의 대화가 있던 후 약 300년이 지났습니다. 1506년에 마침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착공됩니다. 그 때는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 반대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기 8년 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위시하여 면죄부 판매를 반대한 개혁자들의 끊임없는 성경적인 믿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은보화와 예술품으로 웅장하게 건축한 ‘성 베드로 대성당’은 1626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제가 2016년에 가서 본 베드로 대성당에서 예수님의 임재는 발견할 수 없었고 그 능력의 이름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음로는 웅장하나 실제로는 공허한 그 곳에서 저는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말을 암송해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

hanusa1962@gmail.com

### 가장 아름다운 소식

(2면에서 계속)

이것은 철저히 보이는 세계 속의 물리적 법칙 안에서 사유하고 인간의 통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고흐나 카라바조와 같은 위대한 화가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그림에 투영했는데, 그들이 그린 그림의 또 다른 공통점은 빛의 역할을 소망 없는 인생을 비추는 절대적인 계시로 그려냈다는 점이다. 카라바조는 어둠과 빛의 강한 대조를 사용해 장면을 연출하는 테네브리즘 기법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줄리오 만치니의 표현을 빌려, 그의 그림은 마치 검정으로 도배된 방안으로 단 하나의 창문을 통해서 빛이 유입되는 것을 보여준다. 고흐에게도 빛은 그림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감자 먹는 사람들(1885) 위에 비친 작은 호롱불의 존재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구원자를 뜻한다. 그에게 빛의 움직임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으며, “언젠가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이 나고 해가 떠오를 것이다”라고 고백했다.

이들의 그림처럼, 계시되는 빛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은 낮은 곳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다. 어둠과 혼란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둠에서 빛이 뻗어 나오는 것을 볼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갖기를 바란다. 혼돈과 공허함,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

에 좋다(viα) 하였고, 히브리어 토브(vיב)는 ‘좋다’는 뜻 외에 ‘선하다’ 또는 ‘아름답다’로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행히도 이 감춰진 아름다움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모습과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 절정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다. 이는 흠이 없는 단 한 명을 찾아 멘토를 삼으려 평생을 노력하고, 완벽한 지도자로 세우려 온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발견해야 하는, 단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또한 죄로 오염된 피와 제물은 아무런 힘도 효력도 없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쓰라린 상처와 아픔으로 밤을 맞을 때면, 찬송가를 퍼서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주의 보혈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찬양해 보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과 그의 희생의 피에 의지해 나의 짐과 죄를 풀어 놓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대적인 경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을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의’로 믿고 그를 따르며 살기로 결심했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쫓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 그가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삶의 방식이 아름답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에 그저 수긍하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따라갈 뿐이다. 그렇게 혼돈과 어둠 속으로 기계이 들어간다. 삶의 주한 것을 제거해 나가고, 주한 사람을 포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알며 깨어지고 부서진 삶과 마음들 속에 그 조각난 파편들을 모아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되도록 돕고 중보하며 기다린다.

실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의 흔적을 더듬어 가며 드러내는 삶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모든 어두운 상황 속에서 ‘경의’라는 마음을 품고 집중해서 계시된 빛에 반응하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내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빛이 절대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악몽과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다 문득,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놀라운 소식이 내 삶의 전체를 에워싸고 점령하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은 마치 이사야의 노래처럼, 어둠과 절망 속에서 위로와 소망의 탄성이 흘러나온다. 내 주님과 걷는 이 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Soli Deo Gloria!

by 서나영, TGC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p>·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 E-mail: nyk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39<sup>th</sup> Anniversary**

Midwest University(제임스 송, 총장/설립자)는 1986년 미국 중부 St. Louis에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교육부 (USDE), 대학학력인준 기관인 CHEA와 ABHE의 인준을 받은 미국정규 종합대학교입니다.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경영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교육대학(원)  
신학대학(원)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세상을 보는 관점과 라이프스타일

현대 사회에는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방향, 그리고 처지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고유한 관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그 결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들이 형성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로(Yold, you only live once)

올로는 “한번 뿐인 인생을 즐겨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연연함 없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을 후회 없이 현재를 최대한 즐기라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카르페 디엠’은 라틴어로 “오늘을 붙잡아라.”(Seize the Day)라는 뜻으로 현재에 충실하며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로빈 윌리엄스 분)이 학생들에게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즐기라”며 가르친 메시지가 바로 이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모르파티(Amor Fati)

‘아모르파티’는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수 김연자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강조한 이 관점은 “삶이 어려워도 주어진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이하라. 내세를 바라보지 말고 책임을 다할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요노(Yono, you only need one)

‘요노’는 “필요한 건 하나뿐이다”라는 뜻으로 소비를 절제하고 인생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올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지 말고 단순함에 집중하라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라이프스타일의 공통점을 무엇일까요? 모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각기 다른 형태로 개인의 행복, 쾌락, 성취를 추구하며 물질적인 성공과 사회적 인정을 쫓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반영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나를 사랑하라. 나 중심으로 살아라”와 같은 나르시시즘에 기반 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동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뿐인 인생”이라는 말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와 허무함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올

로’의 메시지 대신 “영원히 산다.”(Yalf, you actually live forever)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붙잡아라.”라는 ‘카르페 디엠’ 대신 “영원을 바라보라”는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파티’ 대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건 하나뿐이다”라는 요노의 메시지를 넘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단순한 물질적 필요를 넘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속에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분의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 푸/른/초/장

한현종 목사  
(크렌셔장로교회)



신명기 6:4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4:28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까? 은혜로운 말입니까? 무서운 말이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고 또 왜 은혜로운 말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민수기 13:31-33>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매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기에 가보니,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매뚜기처럼 보였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 달리 해석하면 너무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 달리 해석하면 너무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 달리 해석하면 너무나

행인 건 그 원망의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까. 능력의 말을 하였고 순종의 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11-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

말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어주셔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의 말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용서의 말, 회개의 말,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모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평화와 정의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의인들의 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땅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만 하나님의 귀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갚아 주셔서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백성을 용서해준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믿음의 말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 옆 사람의 기도 때문일지 모릅니다.

나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 주고 위로의 기도를 해주고 희망의 기도를 해 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hyunjonghan@gmail.com

#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신명기 1:34-36, 14:28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까.

<민수기 14:27>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들으신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고 실제로 출애굽 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입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

은혜로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이 말을 왜 무서워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 능력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능력과 축복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을 했는데 만약 이 말만 있었다면, 큰일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다

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귀에 두 가지의 말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 불순종의 말이었고, 최악된 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이었고, ‘순종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의 말을 더욱 귀하게 여기셔서, 그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인지 아시겠지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

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른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여기서 마냥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 악한 말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멸망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능력이 있어도 가나안에 입성시킬 능력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셨구나’ 이렇게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대통령 취임식 기도회 때 나는 성공회 주교의 설교는 과연 성경적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성별은 오직 남성과 여성 male & female"이라고 선포하고 서명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수십만 명의 성매매자들, 마약, 살인, 중범죄자들을 내보내겠다'라는 선포를 통해, 그동안 고통 받고, 심지어 딸들을 불법 입국자들에게 잃어버린 부모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회 주교인 마리안 버디는 대통령 취임 예배 시간에 매우 비성경적인 설교를 함으로 지난주 내내 SNS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주류언론들이 주교를 옹호하기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주교의 설교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기에, 그녀의 설교를 성경적 관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여자와 교합할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영어로는 Abomination, Detestable (가증, 혐오)로 적혀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동성애자 교사, 목회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약에 적힌 건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엉터리 신학 논쟁을 가르치는 시대이기에, 신약도 알려줘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더 무섭고 신랄하게 동성애나 다른 성적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찰리 키르크(Charlie Kirk):

"오늘 설교를 맡은 주교에게는 기독교 메시지를 중심으로 미국을 통합할 수 있는 큰 영광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명예스럽게도 CNN이나 비상식적인 더 뷰의 한 에피소드에서나 들을 수 있는 반기독교적인 연설로 자신을 망신시켰다."

가톨릭 신자이자 합법 이민자 변호사로 유명한, 버니 모레노:

"WOKE 운동가인 성공회 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 훈계하는 연설은 터무니 없이 무례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설교는 미국에 올바른 방법으로 이민을 나와 같은 모든 합법적 이민자들에 대한 모욕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모르는 주교인가? 국경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배워야 한다"

와싱턴 뉴스에서 '트럼프의 남녀 성별 정책이 큰 논란에 빠졌다'라며, 마리엔 주교의 설교를 지지하는 듯한 뉴스를 내보내자, 거기에 대한 수많은 반대 댓글들을 보며 미국의 회복이 보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몇 개만 나눴습니다.

코멘트 1: 트럼프 대통령이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

코멘트 2: 트럼프 성별 정책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이 뉴스 매체는 여전히 한심하군 - 우리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의 올바른 정책이야. 제발 정신 차리길!

코멘트 3: 이제는 동성애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권리'가 아닌 '일반 권리'가 필요한 때!

코멘트 4: 당연히 driver's license 나 여권은 출생증명서와 일치해야 상식이!

마리안 버드 성공회 주교가 대통령 취임식 기도회 예배시간에 나는 설교번역: "트럼프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믿고 당신을 신뢰하고 있으며 어제 대통령께서 전국에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손길(생명을 살린)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간청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길 간청합니다. (생략) 모든 가정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자녀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사실 자체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까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략) 그들은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세금을 납부하고(사실과 거짓이 섞인 내용) 좋은 이웃이며 교회와 모스크 유대교 회당 및 사원의 충실한 사회인들입니다. ... 생략"라고 하며 설교를 마쳤습니다. (전체 설교는 TVNEXT.org)

여러분, 이 와싱턴 성공회 주교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저 주교와의 생각이려면, 서로의 다른 "의견과 관점"으로 일어나는 인본주의 논쟁밖에 나지 않을테니까요.....

우리는 성별/결혼/생명/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을 확실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에서만 그 답을 찾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동의할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로마서 1장에서는 "사형에 해당 deserve death" 한 죄라고 하실 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이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옹호하느니라" (롬 1:26-32)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본다면, 성공회 주교인 그녀의 설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교 대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교만한 생각들을 감히 기도 예배시간에 설교라는 기회를 이용하여 대통령에게 대놓고 훈계를 한 거죠.

마리엔 주교의 설교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셨던 Lorenzo Sewell 목사:

"내 평생 들어 본 설교자 중 최악의 설교자야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황당스럽도록 말이 안 되는 설교여서, 그 자리에 내 아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 아내가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었다면, 몇 마디 듣다가 벌떡 일어나 예배당을 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교는 그 중요한 설교시간에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그녀가 전하는 것이 악마의 메시지였기에, 정말 끔찍했고 제 인생에서 들어본 최악의 메시지였다."

2024년 대선 때 20~30대들의 투표에

마리엔 버드 (Mariann Budde) 주교는 누구인가?

그녀는, 성공회(Episcopal)의 첫 여성 주교(bishop)이며, 아주 오래된 동성애 운동가이고 반기독교(WOKE) 운동가 강연자이며, 트럼프를 매우 싫어하는 반트럼프 운동의 역사가 깊은 여성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동성애 인권운동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와(이브)처럼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이 여성 주교처럼 또다시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의 꿈을 안고 목회하는 40대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 5년 정도가 되면서 목회하며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없이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현재 목회를 포기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코로나에서 KIM 목사

쉽고 휴식

A: 저는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이 사역의 열매가 작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고 그들과 목회 상담도 하였습니다. 사실 사역자들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교회 부흥에 대한 부담감은 많은데 현실은 녹록치 못하고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극복하고 영적 생기를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쉽고 휴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심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몸의 상태는 영적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 찾아오면 저는 모든 것을 잊고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것을 통해 생기와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성경읽기나 기도나 전도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쉬는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과거 교회에 나가면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정도를 일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에 무슨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틈틈이 쉬고 휴식의 중요성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쉬는 것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끼질하는 나무꾼이 계속 쉬지 않고 도끼질하는 것보다 잠시 쉬며 도끼질을 예리하게 갈아놓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휴식하고 목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쉬는 목사에게 활력과 영감을 줍니다.

2) 취미 생활- 젊었을 때의 취미는 보통 스포츠인데 특히 목사처럼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취미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43년간을 목회하게 된 것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탁구를 치며 취미 생활을 한 것이 육체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과 영적 활력을 불어 넣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3)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저는 아내와 일주일에 3번 이상 함께 걷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과 정기모임도 가고 탁구 친구 목사님들과도 모임을 가지며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십니다. 그것이 삶과 사역에 활력을 줍니다. 고후 7장을 보면 바울은 육체적으로 편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으나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하며 바울은 친구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휴식 시간과 취미나 스포츠 가족과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필요입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 목회와 선교

이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 “깨어나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동네 도서관에 갈 때마다 한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으로, 그분 앞에는 항상 쌓여 있는 책들이 있었다. 하루 종일 책을 읽는 데 몰두하고 계셨고, 단지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는 시간 외에는 거의 책을 내려놓지 않았다. 어느 날 궁금한 마음에 그분에게 다가가 "한국분이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분은 웃으며 그렇다고 답하셨다. 이어서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다시 물었더니, 놀랍게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저는 깜짝 놀라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나이에 변호사가 되시려는 생각을 하셨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분은 그동안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오랜 시간을 보내셨고, 몇 년 전 은퇴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은퇴 후, 유

튜브를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자신을 보고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남은 여생을,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죄수들을 돕는 데 써야겠다"는 결심으로 지난해 로스쿨을 마친 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낭비한다고 느낄 때가 많다. 하지만 그분처럼 나이를

불문하고 새로운 도전과 목적을 찾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는 18세기 영국 문학의 거장 에드워드 영(Edward Young)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의 대표작 "Night Thoughts"에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시간은 우리를 낭비한다"고 했다.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면 결국 인생 자체도 헛되이 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은 우리를 쉽게 게으르게 만든다. 짧은 휴식이나 여유라 생각하고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결국 하루, 한 달, 심지어 일 년이 낭비된다. 그리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잡자는 자'라고 표현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향한 경고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히 '깨어나라'고 외쳤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깨어나라는 강한 요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 하루, 한 달, 심지어 일 년이 낭비된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한다. 그 복음의 빛은 우리의 삶을 깨우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며, 목적 없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분히 비추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순간순간을 알뜰하게 살아가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께 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길 바란다. newsong6364@gmail.com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故 카터 전 대통령에 그래미 '낭독 앨범상'

향년 100세로 별세한 지미 카터(1924~2024·사진) 제39대 미국 대통령이 2025년도 제67회 그래미어워드에서 최고의 낭독 앨범상을 수상했다.



손자인 제이슨 카터가 2일(현지시간) 카터 전 대통령 대신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았다. 그는 "그래미상 본부에 감사드립니다"며 "그분(카터 전 대통령)의 말씀을 육성으로 우리 가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남기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미국 조지아주 마라나타침례교회에서 고인이 마지막으로 행했던 교회학교 강의 녹음본인 '플레인스의 마지막 주일들: 100주년 기념(Last Sundays In Plains: A Centennial Celebration)'이다. 이 녹음에는 다리우스 러커, 리 앤 라이스, 존 바티스트 등 그래미상 수상 경력의 음악가들이 협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녹음본에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인용하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구절은 사람들 간의 적절한 관계를 요약한다"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 중국 내 종교활동 딥시크에 물어보니

"중국에 있는 가정 교회 예배에 참석해도 될까?"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Seek)에 이렇게 물었더니 "가정교회 대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석하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삼자교회 등 공식 예배에 참석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홍콩의 '우산혁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 답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딥시크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중국 내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솔직한 답을 내놨다. 딥시크는 공식·비공식 여부를 떠나 중국에는 종교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공식 교회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묻자 "중국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공식 교회라 하더라도 정부 감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중국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롯해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 등 5대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모두 정부 감독하에 있어 활동에 제한이 많다. 중국의 한국인들이 한국 목사와 가정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비공식 예배'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내비쳤다. 딥시크는 "비공식 예배에 참석하거나 주최하면 벌금, 구금, 강제 해산 등 처



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배 참석만으로 직장·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교사의 중국 내 사역도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했다.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느냐"고 묻자 "중국 정부는 종교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선교사의 활동을 매우 경계하고 불법으로 간주한다"면서 "선교활동 중 현지인이나 정부와 마찰이 발생하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비자가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선 여러 기독교 지도자가 투옥됐는데 유명한 왕이 목사는 2018년 체포돼 9년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2018년 산둥성 진주교회가 철거되기도 했는데 공식 교회라 하더라도 정부 압력을 받으며 십자가 제거와 성경 공급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교활동에 제한을 두는 이유도 들을 수 있었다. 딥시크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 통제, 문화대혁명 때의 종교 탄압 영향, 국가 주도의 종교관리 등의 이유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황에 맞는 종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딥시크가 중국의 폐쇄적인 종교 정책에 대해 이처럼 솔직하게 답하는 건 중국 전국정보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사회주의 핵심가치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택환 온맘닷컴 대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종교 자유가 없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이라면 감추지 않고 설명하는 것 같다"면서 "중국의 종교 정책 등에 대해선 딥시크를 참고할 만 하지만 삼자교회 사역 소개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은 한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축구 스타 네이마르 '100% JESUS' 머리띠 화제

'100% JESUS(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세계 최고의 공격수 네이마르 다 실바 산토스 주니어(32)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투스 FC의 빌라 베우미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 환영식에서 착용한 머리띠에 적힌 문구다. 사우디 알힐랄과 계약을 해지하고 12년 만에 산투스FC로 복귀한 네이마르를 보기 위해 모인 2만여명의 팬 앞에서 공개 신앙고백을 한 것이다. 전 세계 수십억명의 팬들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콘서트와 불꽃놀이 등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환영식을 함께 지켜봤다. 오순절교회 신자인 네이마르는 중요한 경기 후나 축하의 순간마다 '100% JESUS'라고 적힌 머리띠를 착용해 왔다. 이 문구는 자신의 재능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모든 영광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 네이마르는 이날 환영식 후 SNS에도 "이 방법 같은 순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적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산투스 FC는 네이마르의 축구 인생이 시작된 곳이다. 그는 앞으로 브라질의 전설인 펠레의 10번 유니폼을 입고 뛰 예정이다.

네이마르는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면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해 왔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전문 학적인 연봉의 10%를 십일조로 헌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마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이상이 될 때 내 인생은 의미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美 교계 '임스턴 여객기 사고' 그레이스 맥스웰 추모 메시지 잇따라...

"지상에서 보낸 시간은 너무 짧았지만 그의 믿음과 친절, 타인을 섬기려는 헌신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기독교대학인 시더빌대학이 지난 1일 학교 홈페이지에 최근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균용헬기 충돌사고로 숨진 재학생 그레이스 맥스웰(20·사진)을 추모하며 남긴 글이다.



학업적 재능을 바탕으로 타인을 도우며 신앙 생활에도 열심이었던 기독교 여대생에 대한 위로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맥스웰은 할아버지 장례식 참석을 위해 고향인 캔자스주를 방문했다가 지난달 29일 학교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생물 의공학학을 부전공하고 있었다. 교내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 손 보조기구 개발에 열중했으며 불방학엔 런던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기계공학과와 팀 노면 교수는 학교와의 인터뷰에서 "맥스웰은 기술을 통해 타인을 돕는 데 관심이 큰 학생이었다"고 회고했다.

토머스 화이트 총장은 최근 열린 추모예배에서 부친에 이어 딸마저 잃은 맥스웰의 아버지가 기독교공체인 학교에 유일하게 부탁한 것은 기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밝고 빛나는 젊은 별이 왜 이렇게 일찍 떠났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편 34편 1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했다. 맥스웰이 수년간 활동했던 캔자스주의 복음사역단체 타깃파크는 페이스북에 "(천국에서)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로한다. 어려운 시기에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미국 교계 지도자도 이번 사고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내놓으며 가능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위로를 전하고자 촉구했다. 하베스트크리스천 펠로십의 그레그 로리 목사는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힌다"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지만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암 4:12)를 상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 여객기가 출발한 캔자스주에 있는 채플힐연합감리교회의 벤 스탠리 목사는 미국 한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돌보는 것에 대한 노력을 예전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 이럴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라"고 권면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탈봇신학교의 에드 스테처 학장은 X에 "주님, 슬픔에 잠긴 이들과 가까이 계시어 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올렸다.

## 美 10%관세 발효하자 中 즉각 15% 부과 맞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다시 미·중 무역 전쟁에 불이 붙었다.



중국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 "관세법 등 관련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석탄 및 액화 천연가스(LNG)에는 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펜타닐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중·미 간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이번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폴리브렌, 인듐 등 반도체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들 광물은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타미할피커·켈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를 거느린 패션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기업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는 양국 간 협상에 달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중국이 대미 추가 관세 발효까지 6일간 말미를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opening salvo)"이라며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중국 제품이 이미 10% 또는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이 매년 중국에서 구매하는 400억 달러 이상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앙칼럼

천국에서 큰 자(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어린이(Children)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항상 크고 많은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크고 많아야 좋은 것이고 크고 많아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많이 가진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크고 많은 것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틈만 있으면 서로 누가 큰가를 다투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 하였음이라"(막 9:34) 큰 자가 되고 싶어 제자로 나선 사람도 있었고, 부모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마 20:20,21)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마 18:1) 묻습니다. "그 때에"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고백을 해서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을 때,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전세를 대신 내주셨을 때로, 크고 작은 일들이 제자들 간에 경쟁과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새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마 18:1)라고 예수님의 의중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당시에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라고 하셨습니다. 당시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짐작 취급을 받던 때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되어서 팔리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며 소모품으로 취급받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런 어린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어린이같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는 자(Those Who Repent)

어린이와 같이 되는 길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마 18:3)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는 그 길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려면 지금의 모습에서 오던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서학자 바클레이가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오래 믿었다는 연조와 믿음의 크기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 믿음이 훨씬 더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단순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종교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항상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와의 첫사랑이었습니다.(계 2:4) 주님과와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려면 신앙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직분만 내세우지 말고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One Who Has Pure Faith)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른들에 비해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투명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솔직해서 마음에 무엇을 숨겨 두지 못합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어린이들에게 "너희 아빠 집에 계시니? 무엇을 하셨니?"하면 어린이들은 서슴지 않고 대답을 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빠가 "누가 찾으면 아빠 없다고 해라"고 시키면 어린이들은 "아빠가 없다고 그러래요."라고 전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오염되지 않은 원시림(原始林)과도 같습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마 5:8) 소나비 같은 은혜가 임해도 비닐을 쓰고 있으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오직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 놓고 살아갑니다. 어린이들은 100% 부모의 은혜와 도움을 신뢰합니다. 아이들은 자

차용호 목사 (센터발원인장로교회)



기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줄 압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잠 3:5,6) 끝으로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Those Who Humble Themselves)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마 18:4) 어린이는 스스로를 낮춥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린이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여주면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을 자기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자기 분수를 압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롬 12:3)

C.S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왜 그렇게 고통과 재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가 "형제여! 그러잖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을 만큼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사 돌이켜 어린이 같이 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주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항상 나를 낮추는 자로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겸손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 모임 이야기 (1) '비전트립'

지난해 말, 성탄절을 앞두고 멕시코의 한 선교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기에 단기도 아니고 '초'단기선교였지만 보내는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트립'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선교사님께서, 국경 초소를 지날 때 가져가는 물품에 대해 조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내셔서 선물로 준비한 장난감들을 박스에서 빼서 마켓 백에 넣고 박스는 따로 퍼서 바닥에 까는 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국경 통과 후 꼬박 여섯 시간 걸리는 긴 거리였지만 사본의 일 정도는 해변가로 뻗은 하이웨이로 가니 절경을 감상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도착 후 다음날 아침엔 집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전여 개의 핫도그를 서둘러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문한 지역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별판 같은 곳이었는데 시간이 되자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아담한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성탄절 행사가 끝난 후 미국의 몇 교회가 보내는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줄은 봉사자들이, 다른 한 줄은 어린이들로 물품을 나누고 받아가는 순서를 마치고 넉넉한 운동장에서 삼삼오오 기쁘게 식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오후엔 어떤 팀은 미국으로 서둘러 돌아갔지만 우리 한부모 모임은 담소하며 감사기도 나눈 후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의 배운을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점심을 노점상에서 타코로 해결하고 오후가 돼서야 국경에 도착했는데 끝없이 늘어난 차들 뒤에 서면서 '몇 시간이 걸릴까' 저녁내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지루함을 달랠했습니다. 하지만 주일인 만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오투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세 시간 만에 통과될 수 있었고 제2의 갠이 된 미국의 공기를 들이키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행 참가자들뿐 아니라 다른 멤버들과 함께 모여 리유니온(Reunion)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한 분은, 행사를 마친 토요일 오후에 걸어서 10분 거리의 바닷가에서 조개잡이 하던 현지인에게서 조개를 구입하여 저녁으로 라면에 넣어 먹었던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깊은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에게 다음 선교여행에 동참할 것을 지혜롭게 권유했습니다. 사실 맛도 맛있었지만 자연 그대로의 바다 경치란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자들에게 자연을 즐기며 휴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선교사님의 얼굴엔 미소가 멈추지 않았지만, 몸을 끌다시피 걷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나누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갔을 때만도 선교사님께서 향후 계획과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 심한 당뇨로 고생하게 됐다는 소식을 이밖에 가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지 생각했을 때 마음과 마음을 다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격려하는 것은 곧 자부 가는 것이 답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뽀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2)라는 말씀을 회원들과 나누면서 다음번 어린이 집회 때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감사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단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교회, 살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강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나는 누구인가?

자기개발과 성공학의 대가인 지그 지글러(zig zaglar)박사가 뉴욕의 한 지하도를 들어가려는데, 거지 한 명이 큰 은행 건

물 앞에서 불쑥없는 불펜을 들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구니에 돈을 던져 넣으면서도 불펜을

가져가지 않았고 거지 역시 형식적으로 불펜을 들고 있었습니 다. 지글러 박사도 다른 사람들 처럼 1달러를 주고 불펜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되돌아가서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준 1달러의 대가로 불펜을 주시오" 거지는 못마땅 했지만 할 수 없이 불펜을 주었고, 지글러 박사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당신도 나와 같이 엄연한 사업가요. 당당하게 불펜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란 말이요. 그러니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할 필요가 없소"

지글러 박사의 이 한마디에 거지는 충격을 받은 듯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남의 적선을 구걸하는 조라한 자신이 사업가라

나...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사장이야... 길거리에서 돈 1불을 받고 불펜을 한 자루씩 파는 사업가라구..."

그 순간부터 거지의 자아상이 달라졌습니다. 구걸이나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못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비판하던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자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꾼 그 사람의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새겼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 나는 1달러에 불펜을 파는 당당한 사업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지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훗날 정말로 큰 사업가가 되었고 자신이 그 앞에서 구걸했던 그 큰 은행 건물의 소유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지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자아상이 새로운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 모든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또,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고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벧전2:9)"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하루하루 삶도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songpak@hotmail.com

2025년 더 폭력적으로...

(1면에서 계속)

동시에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성경강림주일에 다게스탄 지역의 무슬림 중심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두 개의 정교회와 하나의 유대교 회당이 공격을 받았고, 사제와 7명 이상의 보안 요원이 사망했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군을 비난하거나 종교 문서를 배포하거나 전도 활동을 한 혐의로 기독교인들을 처벌했다.

오픈도어는 박해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섯 가지 기준 중 하나로 폭력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살인, 정당한 재판 없는 구금, 납치 및 재산 파괴가 포함된다. 이 같은 폭력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겪는 위협은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에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두 나라 모두 16.7점을 받았다. 폭력이 가장 심한 20개국에는 아프리카에서 15개국, 남아시아에서 3개국,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각각 1개국씩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8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높은 수준의 박해나 차별을 겪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 1명에 해당하며, 아프리카에서는 5명 중 2명, 아시아에서는 5명 중 2명,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6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 지수는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위협한 50개국 중에서 평균적으로 2023년 WWL 리스트 이후 1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역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끊임없는 공격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고 오픈도어는 말했다.

수단의 내전은 군대와 지역 민병대 연합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와 기독교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WWL의 최신 조사 기간 동안 44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100여 명이 성폭행을 당했으며, 100채의 기독교인 집과 사업체가 공격을 받았다. 수단은 아랍과 토착 아프리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인종적 정체성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내전으로 인해 4,900만 인구 중 1,100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오픈도어가 분석한 신앙 관련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는 4,998명에서 4,476명으로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줄어들면서 숫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WWL에서 4,118건이었던 살해 사례는 2025년 WWL에서 3,100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감소했다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폭력이 나이지리아 북중부 지역에서 벗어나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차드와 카메룬의 국경 지역으로

분산되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외의 지역에서는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WWL 2024에서 880명, WWL 2025에서 1,376명). 이는 콩고민주공화국(WWL 2024에서 261명, WWL 2025에서 355명)과 부르키나파소(WWL 2024에서 31명, WWL 2025에서 201명)와 같은 지역에서 폭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알카에다 네트워크와 연계된 지하디스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744명의 기독교인이 정당한 재판 없이 구금되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최고 수치다. 인도(11위)에서는 이 기간 동안 1,629건의 구금 사례가 기록되었다.

기독교 교회나 기타 공공재산에 대한 공격(교회 폐쇄 포함) 수는 2024년 14,766건에서 2025년 7,679건으로 감소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의 상황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원인이다. 중국에서는 보고서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추정치를 사용했으며, 이는 실제 수치보다 낮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WWL에서는 10,000건의 공격이 보고된 데 비해 2025년에는 1,000건으로 줄었다.

르완다에서는 정부가 건축 규정 및 목회자 및 신학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4,000개 교회를 폐쇄했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강간이나 성희롱을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2024년 WWL에서 2,622명에서 2025년 WWL에서 3,123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문화적 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감한 데이터 지점은 기독교인을 비기독교인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사례의 수로, 오픈도어는 2024년 WWL에서 609건이었던 강제 결혼 사건이 2025년 WWL에서 821건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폭력 사태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안전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난다. 오픈도어는 2025년 WWL에서 183,709명의 기독교인이 자국 내에서 안전을 찾기 위해 떠났다고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 WWL에서 기록된 278,716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자국을 떠난 기독교인들은 2024년 WWL에서 16,404명에서 2025년에는 26,062명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강제 이주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들은 수치를 추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한의 추정치에 해당하며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도어는 아제르바이잔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10,000명의 기독교인을 추방했다고 추정했다. CT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진입한 후 100,000명의 아르메니아 민족이 지역을 떠났다고 언급했다. 오픈도어는 이 분쟁에는 인종적 및 정치적 요인들이 존재하며, 신앙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고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박해로 인해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어 그 상태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올해의 목록에서 중국은 15위로 올라갔으며, 이는 2024년 19위에서 상승한 수치이다. 오픈도어는 "교회가 모두에게 개방된 시대는 이제 기억 속으로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은 탈레반의 탄압으로 인해 더 밀려났다. 탈레반의 이슬람 법원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신자들은 지하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 작은 공동체들은 집에서 만나며,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격리된 상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그 결과, 오픈도어는 아프가니스탄을 2022년 1위에서 2025년 10위로 낮췄다. 그러나 폭력 지수는 5로, 상위 10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가자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약 1,000명에서 700명으로 축소되었다. 최소 300명의 기독교인이 이 지역을 떠났으며, 최소 43명이 가자지구에서 사망했다고 오픈도어는 보고했다. 오픈도어는 팔레스타인 영토(서안 포함)를 62위로 평가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위협한 장소지만,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들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by Franco Iacomini, CT

북미주 KCBMC 버클리-Y지회 창립

지회장 류호석, 회원과 함께 사역 최선 다짐



북미주 KCBMC 버클리-Y지회 창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북미주 KCBMC 총연(회장 김성기)은 북미주 버클리-Y 지회(지회장 류호석) 창립식을 지난 11일 에머리빌 소네프호텔에서 가졌다. 강호는 북미주 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김형주 지회장립육성팀장의 기도와 양병근 북미주 연합회장의 말씀으로 시작됐다.

김성기 북미주 총연회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워지는 51번째의 버클리-Y 지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봉 애틀랜타 지회장과 강승태 미주서부 총회장은 격려사로 새 지회원들에게 용기와 힘을 당부했다. 김성기 총연

회장은 류호석 지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총연과 각지회는 창립 후원금을 전달했다. 류호석 버클리-Y 지회 초대회장은 인사말에서 "2006년 한국에서 CBMC를 만났으며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회원들과 함께 일터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지회원들을 소개하고 배지를 증정했다. 풀현 사무총장은 CBMC사역을 소개하고 이어 류호석 하성에 회장 부부를 위하여 총연회장 및 각 지회장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행사는 공주연 씨의 축하연주, 소프라노 권윤희 씨의 축가와 실리온벨리 지회는 축하하는 축사낭독으로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 주었다. 이날 행사는 서승훈 북미주 Y 연합회장의 폐회기도 후 60여 명의 참석자들은 만찬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버클리-Y지회 연락처: (510) 705-2480.

(정리: 박준호 기자)

사우스배일로 대학 한의학을 활용한 선교비전 세미나



사우스배일로 총장 제이슨 신

미국 남가주에 위치하고 있는 사우스배일로 대학에서 한의학을 활용한 선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의를 통한 의료

전문인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선교의 개념과 한의학을 통한 의료

전문인 선교 사역에서의 역할을 소개함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유와 선교적 접근에서 대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학 입학, 정부학자금 보조 및 장학금 지원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입학 절차, 자격, 과정, 졸업 후 진로 소개와 함께 정부 학자금 보조 제도를 소개하여 학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게 된다.

세미나 일정은 에너하임 캠퍼스(1126 North Brookhurst Street Anaheim, CA 92801)에서 13일(목) 오후 3시, LA캠퍼스(2727 We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57)에서 18일(화) 오후 3시이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하여 사우스배일로 대학 제이슨 신 총장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사우스배일로 대학을 통해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또한 개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단기 의료 선교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한의학을 활용한 총체적 선교를 위한 의료 전문인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자리로 앞으로 의료 전문인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모든 분들을 초대 한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웹사이트(www.southbaylo.edu/missionary)를 통해서 신청하여 바라며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한의를 통한 선교방법의 eBook이 제공된다.

문의: (714)533-1495, Seon Kim (admissions officer)

(기사제공: 사우스배일로 대학)



사단법인 솔나무 미주법인 창립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솔나무 이사장)

사단법인 솔나무 미주법인 창립예배 진행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 돕는 사단법인 되길"

비영리 사단법인 솔나무 미주법인(이사장 송솔나무)이 출범하였다. 사단법인 솔나무는 24년 6월 대한민국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에 정식 등록된 법인으로서 시작하였는데 24년 12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단법

인 솔나무 미주법인 창립예배를 2월 1일 시애틀에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진행했다. 사단법인 솔나무 김영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예배에서 권준 목사는 "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서 돕는 사단법인이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송솔나무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며 이제 미국에서도 활동하게 된 만큼 미국 내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도 함께 진행하며 더욱 필요한 곳에 찾아가 열심히 섬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사단법인 솔나무 미주법인의 이사는 시애틀에 형제교회 권준목사와 원민태 변호사/회계사가 맡았다. 한편 이날 예배 후 Seed Money를 후원하시고자 하는 이들과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최근 발생한 LA 산불 화재 피해 현장에서 물품 기부와 자원봉사를 진행했던 사단법인 솔나무 미주법인은 앞으로 미국 내 봉사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channy156@gmail.com, 또는 82-10-8177-0142(김영찬 사무총장)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사단법인 솔나무 미주법인)

#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한인봉사센터(KCS), B형 간염과 유방암 무료 검진**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2월 13일(목)과 19일(수)에 각각 B형 간염과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YWCA(29-30 Union St)에서 B형 간염 검진이 진행되며,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203-05 32nd Ave)에서 유방암 검진이 이루어진다.

▲ 문의: 917-285-4164

## 뉴욕센트럴교회, “어! 성경이 읽어지네”세미나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2월 23일(주일)부터 27일(목)까지 이예실 사모를 초청하여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성경세미나를 개최한다. 시간은 23일(주일) 오후 1시, 24일(월)부터 27일(목)은 오후 7시부터 시작한다. 등록비는 30불(교재, 간식 제공)이다.

▲ 문의: 516-387-9940

## 퀸즈장로교회, SUMMER CAMP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7월7일(월)부터 8월15일(금) 6주간 2025 KAPCQ 썸머 캠프를 개최한다. 대상은 K-9TH이다.

▲ 문의: 718-886-404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개강 예배 후 기념 촬영을 했다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5 봄학기 개강부흥회

### GRS 김은수 목사, “회복과 재헌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2025 봄학기 개강부흥회가 “회복과 재헌신”을 주제로 1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3일간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와 상담학 신학석사(Th.M.) MOU를 맺은 GRS 신학교 원장 김은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퀸즈장로교회에서 저녁 7시 30분에 열렸다. 마지막 날인 29일(수)에는 퀸즈장로교회 일일부흥회로 함께 진행했다.

부흥회 첫날인 27일(월) 저녁에 열린 집회는 학과 정기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은수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역대하 20:14-23)”라는 제목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가 책임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듯이 기도로 나아가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신학교의 모든 과정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것이다. 그 이후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자”라고 설교하며 신학생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둘째 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히 12:1-3), 셋째 날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딤후4:17-18)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선포했다.

둘째날(화) 저녁에는 장학금 수여식과 신입생 환영 및 교훈 패 증정의 시간을 가졌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며 신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이 날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신학교를 세우신 장영춘 목사님과 많은 교수님들은 최선을 다하셨다. 앞서 간 선배동문들의 따뜻한 사랑과 선택에 감사하기 바란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신년하례 및 감사예배 신입단원 입단식 후 사진 촬영했다

## 뉴욕장로성가단, 신년하례 및 감사예배

### ‘하나님의 축복속에 함께 가는 찬양의 길’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송윤섭 장로)은 2월 2일(주일) 오후 5시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29회 신년하례 및 감사예배, 신입단원 입단식을 개최했다.

장세환 장로(부단장)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송윤섭 장로, 성경봉독 김창남 장로(서기), 설교 허연행 목사(단목), 특주 정인국 장로와 김성순 장로, 헌금기도 박해용 장로(회계), 광고 김상규 장로(총무), 축도 안장의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허연행 목사는 “이렇게 축복하라 (민 6:22-27)”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은 첫째, 우리를 지켜주시고, 둘째, 은혜를 베푸시며, 셋째, 평강을 주시는 것”이라며 “올 한 해 장로성가단에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깊어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휘히 비추며 손보다는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신입단원으로 입단한 김성순 장로, 윤종갑 장로, 김

종인 장로, 이주수 장로에게 단복과 뱃지를 증정한 후 장로성가단가를 제창하고 단목 허연행 목사가 축복기도를 하며 신입단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했다. 특히, 신입단원 김성순 장로는 5년에 걸쳐 불꽃씨로 성경을 필사한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대손손 신앙의 끈을 잇기 위해 성경필사를 했으며, 제본만 하는 데에도 2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진 찬양 시간에는 황규복 장로의 사회로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크로마하프 연주(김종민 권사), 펜플루트 연주(김재관 장로), 하모니카 연주(김진원 장로), 워십댄스(손옥아 권사), 부부 뚜엣(정인국 장로 부부, 전병삼 장로 부부), 직전 가왕 초청(이범수 장로), 개그 폰트(염영제 장로), 김성순 장로의 마술쇼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뉴욕장로성가단의 지휘자 한문섭 장로는 아들 피아노 반주에 맞춰 특별가곡을 선사하며 감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홍현숙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주최한 특별이단대책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특별이단대책세미나

### “이단.사이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조상숙 목사)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사자교회(담임 이창남 목사)에서 특별 이단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종명 목사는 “지난 10월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총회에서 미국 내에 다양한 이단들이 들어와 있음을 알았고, 30~50대 초반 목회자들이 이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한인 기독교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조상숙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정금희 목사의 경배와 찬양, 박현영 목사(뉴욕목사회 총무)의 기도, 김영환 전도사(찬양사역자)의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명 목사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과 정통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 강론했다. 그는 “이단을 예방하기 위해 ▲

건전한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 ▲지속적인 성경 공부로 통해 바른 복음관을 확립할 것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가급적 피할 것(소속과 단체를 명확히 파악할 것) ▲현재 출석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부정하며 자신들의 모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즉시 관계를 단절하고 교회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할 것 ▲이단·사이비 전문가나 연구 기관에 제보하거나 상담을 의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와의 증인, 통일교 등 12개의 이단 단체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이단성과 활동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미나는 한준희 목사(뉴욕목사회 회장)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 김정호 목사 출판예배, 40년 목회를 담은 <365 말씀묵상>

### “내일을 기다리며”

김정호 목사가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365 말씀묵상>을 신앙과지성사에서 출판하고 출판축하 예배를 2월 2일(주일) 오후 5시에 후리성제일교회에서 드렸다. 출판예배는 인도 신기성 전도사, 기도 김성태 장로, 성경봉독 심데이빗 장로, 설교 고요한 목사(시온UMC,로드아일랜드), 특송 후리성제일교회 남성중창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요한 목사(로드아일랜드주 애즈버리UMC, 시온UMC)는 신명기 34:1-7 말씀을 본문으로 “내일을 기다리며(신명기 34: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목사는 모세의 느보산 이야기를 인용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 것을 격려했다. 또 내일을 보는 사람들의 손에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리더를 가진 것이 후리성제일교회의 축복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인들 역시 목사와 함께 쫓고 쫓아오는 미래를 믿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격려했다. 환영인사를 통해 하용화 장로는 “올해는 후리성제일교회가 한인회중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40년 넘게 미국 목회를 해오신 김정호 목사님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교와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큰 은혜를 선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준희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교회), 김진우 목사(UMC뉴욕연회 한인교회연합회 회장)가 축사 메시지를 전했다.

김정호 목사는 “책을 만들면서 지난 세월 돌아봤다. 30분 설교 300자로 줄이면서 내 인생과 목회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깨달았다. 성경, 신학, 목회 공부 다시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울기도 했다. 44년 동안 부족한 설교에도 귀 기울여주고 목사로 인정해준 성도님들이 진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홍서 목사(뉴욕늘기쁜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 월드미션대학교, ‘이민목회와 사역’ 세미나 개최

### 뉴욕·뉴저지 목회자 대상, 3월10일 퀸즈장로교회에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목사)는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이란 주제로 3월 10일(월) 오전 9:30~오후 3:30분까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월드미션대학은 지난 2024년 LA에서 동일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NY에서 뉴욕, 뉴저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준비했다.

임성진 총장은 “이민 목회는 단순한 교회 운영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복합적인 사역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은 이민 목회자들은 설교와 교육, 영성 훈련, 가정 사역, 소그룹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인 목회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이민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주제인 ‘목회와 설교’ ‘목회와 영성’ ‘목회와 가정’ ‘목회와 소그룹’



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며 강사로 김영길 목사(LA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임성진 총장, 남성종 교수(아시아 아메리칸 영성센터 디렉터), 최윤정 교수(PCCCE 디렉터), 신선목 교수(월드미션 소그룹사역센터 디렉터)가 단에 선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이 필수다. 등록 마감은 3월2일(주일)까지. 등록 및 문의는 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www.kr.wmu.edu) 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ministry@wmu.edu)로 연락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PCA-CKC 제28차 총회 및 수련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진 촬영했다

## 미국장로교한인교회협의회, 제28차 총회 및 수련회 성료

### 신임 회장 최형관 목사· 부회장 최상렬 장로

미국 장로교(PCA)총회 산하 미국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PCA-CKC 회장 류응렬 목사) 제28차 총회 및 수련회가 ‘The Pastor’라는 주제로 27일(월)에서 30일(목)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다.

류응렬 목사가 인도한 첫째 날 예배는 노창수 목사가 ‘하나님의 경고와 축복(삼하 6:1-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차용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후 Bryan Chapell 목사, 백신종 목사, 류응렬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하며 심수영 목사, 황재진 목사, 최영관 목사의 축도로 집회가 은혜롭게 이어졌다. 마지막 날, 류응렬 목사는 ‘바울에게 배우는 목회 4가지(골 1:28-29)’라는 제목으로 “목양할 때 먼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했던 사도바울의 4가지 목회를 배워 목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목회자와 사모와 선교사, 장로 총대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안성식 목사의 축도로 제28차 총회 및 수련회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마쳤다.

둘째 날 세미나에서는 Bryan Chapell 목사(PCA 총회 서기, 카버넌트 명예 총장)가 ‘The Multigenerational Church Crisis’ 저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그 근본에는 가정이 있다”고 하며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세상이 변화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셋째 날에는 심수영 목사 주관 목회자 부부 모임에서는 Bryan Chapell 목사와 Kathy 사모의 일문일답이 진행됐다. 불신 가정에서 자란 Chapell 목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Kathy 사모의 도움으로 목회를 이루고, 카버넌트 총장과 PCA 총회 서기로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일꾼의 자세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제28차 PCA-CKC 정기총회에서는 최형관 목사(동부노회, 낙원장로교회)가 신임 회장으로, 최상렬 장로(수도노회, 와싱턴 중앙장로교회)가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기사제공 미국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PCA-CKC))



김정호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

##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주심을 믿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자”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다민족연합기도운동,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OC교협 공동 주관으로 1월31일(금)에 열렸다.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오전 9시에 열린 LA 지역 기도회에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있을가 고민하다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모이게 되었다. 광복 80년이 되는 해이다. 광복이후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6.25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존폐위기를 맞이했다. 그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 원조를 받은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되었는데 좌우 이념대결로 혼란스러워졌다. 지금은 6.25 이후 최대의 혼란기라고도 한다. 오늘 이 기도회에 450명 정도 모인 걸로 안다.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생명비전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 개회기도, CBS선교협 창단 특별찬양, 강준민 목사의 ‘국가를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느 1:1-11)’라는 제목의 설교, 송정명 목사 환영인사, 최희량 목사(이승만기념사업회 LA지회장)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다민족연합기도운동 사무총장) 진행으로 열린 2부 기도회는 총 다섯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도전의 메시지와 합심기도를 한 뒤 2-3개의 기도제목과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태광 목사 ‘제1기도: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도전의 메시지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김은목 목사(평화교회)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굳건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교회)가 ‘한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열린 국기를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국가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민중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KCMUSA이사장)가 ‘제2기도: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도전의 메시지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김일형 목사(새생명오아시스교회)가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이 위기를 통해 한국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김미영 전도사(주님의영광교회 중보기도팀)가 ‘한국교회가 부흥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민중기 목사(나침반교회)가 ‘제3기도: 미국 새 대통령과 정부를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도전의 메시지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미미송 박사(리프로그래밍 미션 대표/자마 GLDI공동창설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진건호 목사(하튼교회)가 ‘새 정부 각료들과 주요 리더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소서’, 한현중 목사(크랜튼장로교회)가 ‘각 주의 주지사와 주의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제4기도: 미국이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도전의 메시지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안현숙 목사(CBS중보기도팀)가 ‘학교에서 성경과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

치게 하소서’,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교회)가 ‘교회들이 영적각성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김요한 목사(



글로벌비전교회 개척감사예배에서 제임스 구 담임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글로벌비전교회 개척감사예배

## “교육선교에 앞장서며 시공간을 초월한 플랫폼 발전시킬 것”

글로벌비전교회(담임 제임스 구 목사) 개척감사예배가 2월2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거행됐다. 제임스 구 목사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개척할 수 있었다. 비즈니스를 공부했고, IT 행정 일을 했었다. 떠돌이 인생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한다”며 “교회는 선교이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며 교육선교사역을 했기에 오늘 개척이 될 수 있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시공간을 초월한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다. 교회 사역을 통해 선교지에 있는 미래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세계선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라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순민 전도사와 오혜영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개척감사예배는 안성진 목사(생명나무선교교회)가 기도했으며 김광진 목사(은혜한인교회)고 김광진 목사 부인) 특별축하메시지와 탄자니아 조이풀 그레이스 채플

성암교회)가 ‘세계선교사명과 세계 평화유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 샘 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가 ‘제5기도: LA가 화재를 극복하고 새롭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도전의 메시지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최정화 장로(연한선교교회 원로장로, 성시화 재정국장)가 ‘화재 피해자, 소방대원을 위해, 순조로운 복구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새생명비전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한기형 목사(미주 CBS TV기독교 방송대표)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OC지역 특별기도회가 열렸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미주복음방송의 2025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의 2025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 남가주 6개 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찬양 작곡가 겸 예배인도자 손경민 목사와 The 은혜 워십팀(찬양사역자 이윤화, 찬양사역자 주리, 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 한다. 일정은 2월 14(금)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15(토) 오후 6시 인랜드교회(안환 목사), 16(주일) 오후 6시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김도일 목사), 21(금) 오후 7시 열바인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 22(토) 오후 6시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 23(주일) 오후 6시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 다사이플교회 2025 부흥회

다사이플교회(담임 고현중 목사 17502 Daimler Street Irvine CA 92614)는 2025 부흥회를 오는 2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이다. 부흥회 일정은 7일(금) 오후 7시30분, 8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9일(주일) 1부, 2부예배

## 세리토스선교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말씀집회, 연주회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는 창립 40주년 기념 말씀집회를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갖는다. 말씀집회 강사는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7일(금) 오후 7시30분, 8일(토) 오전 6시, 9일(주일) 1, 2부 예배시간이다. 또한 창립 40주년 메시아 연주회는 8일(토)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 기쁜우리교회 창립 8주년 기념주일예배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창립 8주년 기념 주일예배를 9일(주일) 예배시간(오전 9시, 오후 12시30분)에 갖는다. 이날 2부 예배시간에는 은퇴식을 거행한다.



ATG의 첫 찬양과 기도의 밤 찬양집회를 인도한 스태프들

# Young Lee와 함께한 ATG Worship Session

## 남녀노소,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찬양 축제

ATG(A Thousand Generations) Worship Session의 첫 찬양과 기도의 밤이 지난 1월 25일(토)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제일교회당에서 뜨거움과 감동 그리고 열정 속에서 열렸다. 찬양과 기도의 밤에는 부모님과 함께한 청소년들, 친구들과 함께 카포로 참석한 젊은이들, 그리고 90대에 이른 시니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하였고, 다양한 피부색의 여러 민족이 함께 한 찬양과 기도의 밤이었다. 뉴욕을 기반으로 하여 찬양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Young Lee의 찬양인도에 모든 회중은 온 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경배하였다. 또한 Joshua Kim 전도사의 중간중간의 메시지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였다. ATG(A Thousand Generations) Worship Group은 각자 교회에서 찬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조직된 범 교회적 젊은이들로 구성된 찬양팀이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이며, 전문적인 음악인의 길에 들어선 이들도 있다. 이번 집회에 대해 ATG Worship Group 지체들은 1세대 어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기타를 연주하였으며 주님께 항복하면서 오는 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계심을 상기하게 되어 이렇게 의미 있는 찬양과 기도의 밤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Joshua Kim 전도사의 중간중간의 메시지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였다. ATG(A Thousand Generations) Worship Group은 각자 교회에서 찬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리: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에서 열린 논문, 자녀학습을 위한 Chat GPT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달라스빛내리교회 2025 선교부흥회에서 이상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달라스빛내리교회 2025 선교부흥회

##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달라스빛내리교회(담임 정찬수 목사)는 2025 선교부흥회를 1월31일(금)부터 2월2일(주일)까지 ‘위대한 부르심 기록한 도전(요 20:21)’이라는 주제로 가졌다. 이번 선교부흥회는 이상훈 목사(미성대학교 총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지윤수 목사 사회로 2월2일 오전 11시에 열린 부흥회는 이상훈 목사가 ‘거룩한 도전(사 6: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상훈 목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지킬 것이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과 방식보다 교회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서있는가? 라고 질문해봐야 한다”며 “개인적인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체 이신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증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나누어 주고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면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나라 일을 위해 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흥회는 이상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hatGPT 세미나 개최

## 설교, 논문, 자녀학습을 위한 실질적인 팁들 소개

2023년 Lilly Endowment inc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북미 한인사회와 아시아-아메리칸, 그리고 지역교회들의 신앙 공동체 성장 프로젝트, TCI(Thriving Congregations Initiative)를 진행 중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 총장 최규남 박사)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교회 목회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AI ChatGPT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4년 9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AI ChatGPT세미나에서 TCI프로젝트 총괄 디렉터인 이병구 GMU박사원 학장은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ChatGPT는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TCI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세미나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첨단인공지능 AI ChatGPT를 활용한 목회 설교와 논문작성, 자녀교육에 대한 명확한 주제를 가지

고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되었다. 미션어웨어 김광근 목사가 발제자로 나선 1부에서는 “강단에서의 보다 수준 있는 설교를 위해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Chat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에서는 AI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목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논문 연구 방법과 논문 작성 방법’에 ChatGPT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AI Mission 이총희 목사가 AI를 활용 할 수 있는 자녀들의 학습 교육법 원리들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 현장과 줌을 통해 참석한 많은 이들은 AI ChatGPT 활용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인공지능 AI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혁신을 가져다 줄 도구가 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것은 (714)525-0088, admissions@gm.edu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



### “준비하라, 복음통일!” DMZ에서 울려 퍼진 청년들의 외침

#### CCC NK사역부 ‘통일순장캠프’ 개최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청년 통일리더 양성프로그램인 ‘통일순장캠프’가 4일 경기도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개막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 NK(북한)사역부가 주최한 이번 캠프는 7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캠프에는 CCC 순장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캠퍼스에서 제자와 사역을 담당하며 순모임을 이끄는 대학생 청년들이다. 이번 캠프 주제는 ‘준비하라 복음 통일’이며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가 주제 성구로 선정됐다. 개회예배에서 최상규 NK사역부 책임 목사는 “2025년은 한반도가 해방과 함께 분단된 지 80년이 되는 해로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갈 때 라며 “한반도 회복을 위해 기

도하고, 각자 전공과 달란트를 활용해 복음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캠프에선 CCC의 통일 사역과 비전을 소개하는 ‘사역 박람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북한 사역과 복음통일 전략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CCC NK 사역부는 ‘북한대학 입학사역’을 통해 북한 대학 77곳을 영적으로 입양해 기도하고 있으며, “느헤미야 기도회”와 ‘DMZ 통일기도회’ 같은 중보기도 운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통일 리더 양성을 위한 ‘통일순장학교’는 2019년 시작돼 현재까지 1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또한 ‘통일비전트립’을 통해 목역을 방문하는 등 국제적 통일 리더십을 훈련하고 있으며, 탈북민 청소년·대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역도 진행해 실천적 통일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CCC는 전국 12개 캠퍼스에서 통일순을 운영하며,

300여 명의 청년들이 북한 선교와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저녁 집회에서는 김영우 헤림교회 목사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를 기뻐하셨다”(고린도전서 1:21)는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북한 복음화는 우리의 사명이자 CCC의 비전인 민족복음화를 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말씀이 마친 뒤에는 북한을 위한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통일과 관련된 관심 분야별(문화, 미디어, 창업, 법, 의료 등) ‘영역순모임’에 참여해 통일 이후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팀별 발표가 예정돼 있다.

캠프 기간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와 허남일 그날교회 목사가 통일 관련 강의를 진행하며, 통일부 김수경 차관과의 특별 대담도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은 국립통일교육원 산하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제공하는 체험형 교육 활동에도 참여한다. 프로그램에는 △통일 KTX VR 체험 △통일한국 가상 뉴스 활용 ‘통일광장’ △통일미래체험관 방문 등이 포함된다.



### CCM STAR ‘시즌9’ 으로 찾아온다

#### 특별한 멘토링과 함께 다음세대 찬양 사역 발굴 나서

찬양사역자 발굴 프로젝트 오디션 씨씨엠스타(CCMStar, 포스터)가 시즌9를 진행한다. 2013년 첫 번째 시즌을 시작으로 2년에 한 차례씩 개최돼 온 씨씨엠스타는 그동안 ‘복음

은’의 박윤수, ‘나의 고백’의 다습, ‘예수 소망’의 배하은 등 수많은 찬양사역자들을 배출해 왔다. 또 대회 수상자들이 싱글 앨범 제작과 워킹콘서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성사역자의



### “작은 교회 찬양 배달” 행사에 정용진 회장이...

#### 가수 범키 간미연, PD 등 전문 인력, 작은 교회 23곳에 찬양집회 선물

“성도 4명이 15년째 예배를 드리던 우리 교회에 전문 찬양팀이 온다고 하니 목사님이신 저희 진정엄마가 처음엔 보이 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찬양 예배 당일엔 자식들이 명문대대 간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경기 수원인 예수이교회의 성도인 최유리 집사는 2일 경기 성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딜리버리 프로젝트 웹캠데이’에서 1년 전 ‘딜리버리프로젝트(딜프)’가 선사한 초청 찬양 집회의 추억을 공유했다. 딜프는 성도 30명이만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 찬양을 선물하는 작은 교회 전문 프로젝트팀이다. 가수 범키와 간미연, 개그맨 이정규, CCM그룹 러빔, 활영·음악 감독 PD 디자이너 등 전문 인력 42명이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작은 교회 23곳에 찬양 집회를 ‘배달’했다. 교회 사연에 맞춰 창작곡을 선물한 교회도 6곳이나 된다.

딜프 사역 2년 차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엔 그동안 합

계한 목회자 가정과 후원자 등 210여명이 함께했다.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된 예배와 찬양에 끝까지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부부도 눈길을 끌었다. 정 회장은 “그늘진 곳을 비추는 호롱불 같은 작은 교회 목회자 가정에 근사한 저녁을 나누고 싶다”는 딜프 계획을 전해 듣고 장소 물색은 물론 식사까지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플루티스트인 정 회장의 아내 한지희씨는 범키의 CCM 앨범에 연주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정 회장은 “그 어떤 대형 교회보다 예배가 뜨거웠다. 오히려 은혜받고 간다”고 했고, 한씨는 “저희 부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딜프 사역이 가능했던 건 수많은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소개란에 실릴 목회자 프로필을 짚어 주셨다면 사 진작가, 십자가 장식 등 교회 물품을 선물한 기독교용품업체 등의 후원이 그렇다. 서재원



### ‘중증외상센터’의 작가 이낙준

#### “목회자 아버지 덕분”

“모든 것은 부모님 덕분이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웹소설 원작이자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이낙준 작가의 고백이다. 중증외상센터는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전문의 배강혁(주지훈)이 유명 무실한 중증외상팀을 심폐 생기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오징어 게임2’를 제치고 TV쇼 부문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19개국에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넷플릭스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에서 9위

에 랭크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작품의 원작자인 이낙준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이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를 풀어내며 뛰어난 스토리텔링 역량을 입증했다.

이 작가는 작품 공개 전 CBS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웹툰 작가가 되기 까지 목회자 아버지 영향이 컸다”고 고백했다. “아버지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재학 중 하나님을 만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성품을 지닌 분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한결같았으며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또 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19개국에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넷플릭스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에서 9위

**피종진 목사 2월 부흥성회**

- 동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2(주) 오전** 오창 회광교회(이정일 목사) 010-4613-8179

**3(월) 저녁** 서울 위대한의교회(임미향 목사) 010-6201-8374

**6(목)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중)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취임식 설교 장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3층 그레이스홀(연락처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8(토) 오후** 논산 신명유교총연합회 3층 진중세례식 장소 : 연무대학교

**11(화) 오후** 주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서부지정로연합회(회장 이재중 장로) 서울 기독교 교육방송(대표 김규일 목사, 국장 홍성남 목사) 010-4242-5022 기독교연합회관 311호

**13(목) 오전**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

**제244차 해외성회 (244th Overseas Assembly)**

- 13(목) ION KAL 18:10 → New Zealand (Auckland)
- 14(금) 뉴질랜드(New Zealand) 금요일야성회
- 15(토) 뉴질랜드(New Zealand) 소망교회 7천 기도클럽 New Zealand 지부 MT
- 16(주) 뉴질랜드(New Zealand) 예수찬양교회(박성열 목사)
- 16(주) 저녁 뉴질랜드(New Zealand) 오콜랜드 연합부흥성회
- 17(월) 오전 뉴질랜드(New Zealand) World Gospel Bible College
- 18(화) 오전 뉴질랜드(New Zealand) Seminar for Pastor and Missionaries
- 19(수) 저녁 뉴질랜드(New Zealand) → Seoul Korea

- 21(금)~22(토) 천안 위대한의교회(유재민 목사) 010-3980-5991
- 23(주) 오전 서울교회(박성기 목사) 010-5276-7313
- 24(월)~26(수) 안산 팔복교회(한병도 목사) 010-8545-7114 새성전 이전 감사축복대성회
- 25(화) 오전 서울 국회대로 UN교회(최희승 목사) 010-4025-0691
- 27(목) 저녁 서울 종로 여전도회(주최) : 대한민국 나라사랑 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2658-9006
- 28(금) 오후 마라나타 TV 복음방송 신년하례예배(대표 김도보라 목사) 010-8954-8956

www.nsca.or.kr  
www.nscakr.org  
www.nscakr.com



### “꿈같은 한국 여행... 기도하니 이뤄졌어요”

#### “축구 통해 전도” 오필환 선교사가 창립

태국 파타야 할렐루야축구단 청소년들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 하나는 태국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것, 나머지는 오랜 시간 축구단을 응원해 준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축구단에서 국가대표가 탄생한 데 이어 올해 꿈같은 한국 여행까지 성사되면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모두 이뤄졌다. 할렐루야축구단이 지난 달 28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방한했다고 2일 밝혔다. 축구단 소속 13명 청소년은 한국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태국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축구단은 프로축구 선수 출신 오필환(67) 선교사가 32년 전 설립했으며 소외 지역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통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 서울 영등

포구 신길교회에서 만난 오 선교사의 동역자 박남준(41) 선교사는 “아이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했었는데 기도 제목이 다 실현된 것을 보면서 기도의 힘을 실감했다”며 “이번 방문이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을 뛰어 넘어 영적인 체험이 된 것 같아 더 기쁘다”고 말했다. 현재 할렐루야축구단에는 13~18세 청소년 70여명이 함께 연습하고 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아이들에게 친밀하게 접근하는 데는 축구가 큰 몫을 했다. 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도와 예배로 신앙을 키운다. 지역 학교 이름으로 대회에 출전하는데 주에서 1등을 하고 전국 대회 8강에도 들었을 정도로 실력도 향상되고 있다.

축구단 방문은 신길교회 여

멘토링을 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찬양과 예배를 세워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씨씨엠스타 시즌9에는 ‘은혜로다’의 장종택 목사, ‘야곱의 축복’의 김인식 목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의 유은성 전도사 ‘행복’ ‘은혜의 장한이 사역자, ‘보라 너희는 두려워말고’의 강중현 백석예대 교수가 심사위원이자 멘토로 함께 할 예정이다.

오디션은 이달 접수를 시작해 4월~5월 ‘호남 광주’ ‘경상 대구’ ‘서울 경기’로 나눠 지역 예선을 거친 뒤 6월 28일 정릉 벨엘교회에서 본선대회를 치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선 전달 원데이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1~8회 수상자와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PD는 “예배 현장에 나와 직접 돕거나 기도와 재정으로 돕는 분들이 있어 우리의 사역이 가능했다”며 “대전의 더코드미니스트리 등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형제 사역팀이 등장한 것도 반가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만난 작은 교회들은 그늘진 곳을 비추는 호롱불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 그런 교회의 소망 위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뤄지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전부터 딜프 사역에 동참한 간미연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년 안 된 제가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범키는 “크고 작은 돕는 손길과 수많은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정규는 “미자립 교회를 미래의 자립교회라고 부르고 싶다”며 “작은 교회의 상황을 놓고 많은 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에스겔선교회의 김동호 목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딤후 2:20~21)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성도 수를 늘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젊은 시절 소망을 가장한 야망에 속았던 적이 있다.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도 세상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10명이든 20명이든 한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데 관심을 두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도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놀이동산 쉼터장 남산타워 명동 등을 둘러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취사원)이 준비한 따뜻한 패딩점퍼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산 유명 브랜드의 축구화도 받았다. 이들의 소원 중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는 것이었다. 태국에서 출발할 때 날씨가 예뻐보여 없던 눈이 방한 일정 중에 내리면서 눈수들은 눈을 맞으며 거리를 뛰어다니기도 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들이 청소년·청년성령군퍼런스에 참여해 뜨거운 예배를 경험한 것이었다. 박 선교사는 “태국에는 다음세대들이 신나게 뛰어 찬양하는 문화가 없어서 아이들이 한국 예배문화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태국에서는 한 번도 내 설교를 받아 적은 적이 없던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내가 통역한 설교를 받아 적더라”며 웃었다. 축구단원 티파(17)는 “태국에서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 축복을 많이 받았고 예배가 이렇게 즐겁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선교사는 축구단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선교의 창 (25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한 영혼에 초점 맞추는 사역

현 세대는 몰량주의를 선호한다. 빠른 시간대에 많은 몰량(Margin)이 크다는 것이다.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주의 일도 이 패턴(Pattern)을 따라가고 있다. 다수 대중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은 열매 없이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기 쉽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온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셨다. 현대 오늘날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이

별레는 잡아 주어야 할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매 화초마다 특수적 상황이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주인이 화초를 전체적으로 돌보되 때로는 개별적으로 관찰하며 그 특성에 맞게 처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맞춤형 배양이 곁들여질 때 화초는 건강하며 빠르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오죽하라? 인간은 화초나 아니 그 어떤 피조물보다 내면세계가 복잡하며 태생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인간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은 헬기왕성하며 그 기대치가 높다. 저들이 대

있어야 한다. 요즘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3Q전략이다. 질(Quality), 양(Quantity), 속도(Quick)를 의미한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가 승패를 가름하기도 한다. 가상적 목표치를 위해 서두르다보면 질을 무시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양에 집착하기 쉽다. 질이 없는 양은 없다. 양을 위해서는 질을 우선 시 해야 한다. 질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빠르다고 다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리다고 다 느린 것이 아니다. 중국 성도에는 모퉁이란 대나무가 있다. 이것은 처음 씨를 뿌린 후 거의 5년 동

테레사 수녀는 1950년, 인도의 콜카타에서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빈민과 병자, 고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녀의 사역은 계속 확장되어 사망하기까지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 등을 포함해 123개 국가에 610개의 선교 단체를 설립하였다. 그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1980년 인도의 가장 높은 시민 훈장인 바라트 라트나(Bharat Ratna)를 받았다. 20세기의 성녀라고 불리는 그녀는 말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명이 넘는 사람을 붙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거기 보태지 않았다면 지금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 4. 맞춤형 양육 사역

이는 한 사람의 총성된 양육자가 동반자를 일대일로 만나

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등 선지자나 사도들이 수제자에게 일대일로 맞춤형 교육을 하였다. 그렇다면 왜 주님과 여러 사도들은 일꾼양성의 수단으로 이 방법을 택했을까? 이유인즉, 하나, 상대방에 대한 집중과 의사전달이 용이하다. 둘, 동반자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셋, 공동체에서 숨겨질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상처들이 드러나고 치유될 수 있다. 넷, 개인의 형편에 따라 맞춤 양육으로 동반자의 신앙이 체계화되고 견고해진다. 다섯, 서로 간에 영적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동역자 관계가 형성된다. 여섯, 양육자는 목자의 심정으로 동반자를 돌보게 되므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한다. 일곱, 이 사역은 신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5. 산술급수와 기하급수적 결과

맞춤형 사역의 특성은 수학에 비교된다. 수학에는 산술급수적 증가와 기하급수적 증가란 두 개념이 있다. 산술급수적(Arithmetic) 증가란 매일 한 명씩 전도하면 1년에 365

는 단순 전도의 산술적 증가가 훨씬 앞선다. 그러나 13년째부터는 그 수치가 역전된다. 이후에는 제자훈련에 의한 기하급수적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배가된다. 이처럼 일대일 제자 양육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모든 것은 운영자의 묘미에 달려 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방안이 이론처럼 설사 그 수가 양적으로 배가 되지 않고 질적으로 동반자가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선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성경적이며 겨자씨와 모퉁이라는 대나무와 같이 때가 차면 기하급수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 맺음 말

한 영혼에 초점 맞추는 사역! 이것은 맞춤형 사역을 의미한다. 이는 어쩌면 속도 전쟁인 현대에 맞지 않는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수치적으로도 기적을 낳는 가장 공격적이고 확실한 방책이다.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대일 양육된 사람은 주일예배에도 참석하기 급급한 일반 회중과 같을 수 없다. 이들은 양육을 받고 또 자신이 직접 양육

3Q전략이란 질(Quality), 양(Quantity), 속도(Quick)이다. 질을 우선시 하지 않는 양 위주의 사역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선교는 산술적 수치보다 한 영혼에 초점 맞추어 진행해야 힘이 실린다.

러한 주님의 관심과 사상이 실천되고 있는가?

### 1. 맞춤형 사역의 필요성

세상 모든 자연 이치는 맞춤형 돌봄을 필요로 한다. 화단에는 여러 화초들이 있다. 주인은 이 꽃나무들에게 공통적으로 물과 비료를 흩뿌린다. 하지만 화초 입장에서 저마다 다른 요구가 없다. 어떤 화초는 물보다 비료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또 다른 나무는

중 속의 일원으로서 일반적 관리가 될 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집단으로 치료할 수 없듯이 영적 돌봄도 마찬가지이다. 선교는 선들러 리스트 영화의 메시지처럼 한 영혼(One more soul)부터 시작해야 된다.

### 2. 질과 양의 상관관계

사역이든 사업이든 뭔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이

안 작은 순이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5년째 말미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30m에 이른다. 다 때가 있다. 열매는 때가 차야 한다. 그러므로 메시에란 때가 솔수를 뿌리면 안 된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맞춤형 양육 사역은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책이다.

### 3.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이 사역방법의 근거는 성경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에게 나타나 각각 일대일로 말씀하셨다. 신약에 예수님도 대중적으로 사역하시면서도 중요할 때 일대일로 사람을 도우셨다.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을 부를 때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등 수많은 많은 예증이 있다. 이 밖에 모

명이 된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3,650명이 된다. 33년 뒤에는 정확히 12045명이 된다. 그러나 기하급수적(Multiplication) 증가는 배가의 증식방법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첫째에는 양육자가 동반자 한 명을 품기에 2명이다. 다음 해에는 2x2=4명이 된다. 그리고 10년째는 1,024명이며 20년째는 1,048,576명이 된다. 예수님의 나이인 33년째는 현재 지구의 인구 70억을 훨씬 초과한 8,589,934,592명이 된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년 내에

자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파괴력은 감히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명료한 사실 하나는 산술적 증가로는 결코 인구 증가율이 나 이슬람의 확장 속도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Jrsong007@hanmail.net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 37강 요나단, 다윗 (1-2) (사무엘상 13,14, 16-20장)

### '부르심' 받는 다윗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삼상 16:1).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삼상 16:3)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오해를 하자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아들 7명이 아닌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있던 다윗이 불려오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삼상 16:12)고 하십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아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삼상 16:13)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여기서 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확히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니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이미 사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삼상 15:26)고 하지만 아직은 사울이 왕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믿음입니다. 사울은 아직 세상에서 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에서는 아직 보잘 것 없는 소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은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다윗이 더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도록 괴롭히고 연단하는데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마치 왕이 살아 있음에도 왕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지목된 '피택된 왕'과 같이 세상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진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자로서의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 '왕의 수업'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왕'을 드러내기 위한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살겠지만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가 왕이면서도 죄인으로 드러나는 삶 전체를 통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살게 될 '그림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백성의 왕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사울도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실 다윗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여호와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다윗의 '왕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후 여호와와 영이 떠나고 악령에 의해 번뇌하는 사울을 돕는 일을 합니다(삼상 16:14-23).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삼상 16:23). 모양은 다윗이 사울을 모시는 신하이지만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인 사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려지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왕인지도 알고 있습니다(삼상 14:47,48/ 삼하 1:17-27). 그런데 그 사울을 가까이에서보니 '여호와와 영'이 임한 사울과 여호와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울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1)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시 블레셋입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군대, 광야에서는 아말렉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사방이 대적이었지만 특히

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 서로 양쪽 산에 서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돋우는 자가 나와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삼상 17:8,9)고 합니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삼상 17:10,16).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할 뿐 아무도 그 '한 사람'으로 나서지 못합니다(삼상 17:11).

이때 아버지 이새가 형들을 위해 보낸 다윗이 등장하고 이 말을 듣고서(삼상 17:23)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삼상 17:26)고 하며 사울에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삼상 17:32)라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도 할 수 없는 전투이므로 말리지만(삼상 17:33) 결국 다윗은 자신을 부르는 자리, 자신이 서야 할 자리로 나가 그 자리에 섭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의 갑옷을 주지만(삼상 17:38,39) 골리앗과의 전투에 필요한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삼상 17:43,44)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삼상 17:45-47)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물매들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어버립니다(삼상 17:48-51). 결국 골리앗 말대로 '한 사람'이 나와서 이기면 모두가 종이 되어야 하기에 승기는 이스라엘에게로 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삼상 17:52-54). '한 사람'의 승리로 모두가 그 승리는 나누듯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인간 명절은 무렵하다 (삼하 2:12-32) 찬 326장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과의 일연의 갈등에서 인간 명절은 무렵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첫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다윗 편이 승리로 기울어 지게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이 보여진 것처럼 혼란 속에서도 그 나라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둘째, 쌍방의 싸움

에서 그 나라의 의와 공효는 나타납니다. 아사헬이 자기 힘만 믿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달려갔으나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재능과 지혜도 하나님의 손안에 놓일 때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할 때 그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화 미갈을 데려오라 (삼하 3:1-16) 찬 274장

예나 지금이나 가정생활의 창조 질서의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무시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이 본문에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첫째,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간한 죄 때문에 그는 요압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의 통일왕국 건립에 일조하였지만 탐욕과 간음의 죄가 하나님께 묵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

원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 생애에 많은 유혹이 몰려 온 것은 가정생활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부일처의 창조 원리를 따르지 못한 것이 울무가 되었고 첫사랑 미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브넬로 반드시 미갈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미갈 처럼 큰 사랑을 저버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첫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수 죄를 미워하는 다윗 (삼하 3:17-39) 찬 338장

아브넬 망명으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무장을 해제한 아브넬을 요압이 죽임으로 또 다른 위기가 몰려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첫째, 그는 죄를 미워했습니다. 요압의 한 행동을 심하게 책망하며 그 죄를 미워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중하며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죽은 사울과 아브

넬에 대한 배려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혼란한 민심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적 나라를 세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목 경외신앙의 진수 (삼하 4:1-12) 찬177장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찾아온 두 사람을 죽인 다윗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경외신앙의 진수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사울이 받은 기쁨 부음을 진심으로 존중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기쁨 부음은 구약의 삼중직(왕, 선지자, 대제사장)에 부여됨으로서 오직 성령으로만 사역이 가능함을 보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경외신앙입니다.

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려는 마음이 경외신앙의 또 다른 진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좇으며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바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금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삼하 5:1-10) 찬 431장

다윗이 왕이 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단지 중간보고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다윗이 받은 복은 왕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맛을 보는 것이 참된 복이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한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둘째, 다윗의 사역을 점점 강성케 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임하심으로 그 복의 노른자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구원 여정에 은혜로 주어진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는 주님이 친히 허락하신 복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자로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십시오.

토 왕이신 그리스도 (삼하 5:11-25) 찬352장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왕이 된 다윗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첩들에게서 나온 소생이 11명이나 되는 부끄러움 보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왕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진리를 발견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란 사실입니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

리셨습니다. 단지 인간 왕을 통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 속에 나타난 그의 고백에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 피난처, 요새, 능력, 망대라는 확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10)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도구 활용

Generative AI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목회와 선교적 활용 (8편)

10. Video to Video (VTV) AI 기술의 활용

Video to Video(VTV, 비디오 대 비디오) AI 도구는 기존 영상을 변환하여 새로운 스타일, 품질, 소리, 또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간단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원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조명, 음성, 소리 등을 통합하여 영화 장면처럼 영상을 변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설교와 성경 교육

오래된 설교 영상을 AI로 업스케일링하여 유튜브나 교회 웹사이트에 재업로드 하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AI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울, 마틴 루터 등의 신앙 인물들을 AI로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 및 다국어 전도

선교 지역의 언어로 자동 번역 및 더빙하여 효과적인 전도 도구로 AI 다국어 설교 더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회의 선교 영상을 AI 아바타로 제작하여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인 전달할 수 있으며 각 선교지에 알맞는 성경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하거나 특별 제작함으로써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콘텐츠 및 온라인 사역 확대

교회의 비전과 활동을 AI 기반 영상으로 제작하여 SNS 홍보할 수 있도록 교회 홍보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간증 혹은 인터뷰 등의 영상을 편집하거나 AI로 보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회 온라인 예배 또는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이 가능하게 합니다.

dr.jameskoo@yahoo.com

이러한 VTV 도구들을 활용하여 목회와 선교를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편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되었습니다. 훨씬 규모는 적지만, 3년의 기간 때문에 한국 625전쟁이 떠오릅니다. 오후에 길가가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불과 3분 만에 바로 위에서 큰 울림과 함께 로켓 요격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숨을 곳을 찾았지만,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아무런 요동 없이 보행 신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공습 폭격도 일상화되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생활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전쟁도 일상화된다는 것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폭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집시 교회 성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큰 도로에서 40분여간 출길로 가야 하는 전화도 터지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집시 마을은 마치 가브리엘이 성탄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베들레헬 들판처럼 보였습니다. 30가구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모두 양, 염소, 오리 등을 키우며 물물교환하며 생활합니다. 참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특별한(?)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마구간 냄새라고 여겼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넓었습니다. 그 하늘을 가득채운 허다한 천사들이 집시 교회 예배를 찬양하셨습니다.



새가 났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마구간 냄새라고 여겼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넓었습니다. 그 하늘을 가득채운 허다한 천사들이 집시 교회 예배를 찬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탄 예배를 감사하는 주일 학교 모습입니다. 성탄 선물 때문인지(?) 더 많이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연극도 하고, 많은 선물을 받아 몹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 모두는 마음이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이들의 아빠들은 대부분 전쟁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없는 성탄절이 더 힘들어서 전쟁터에 있는 아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탄 예배였습니다.

기도 제목

- 1.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서, 모든 가정들이 예전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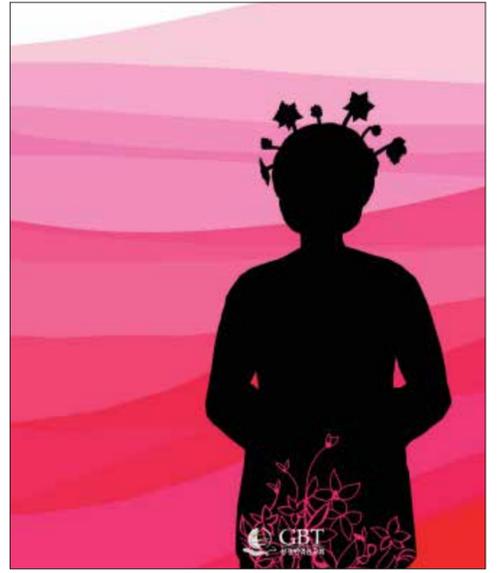


- 함께 모여 저녁 식사할 수 있도록
2. 흠어진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피난지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3. 집시 교회 주일 학교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디모데와 같은 일군이 일어나도록

- 4. 매일 공격 되는 로켓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도록
5. 현직인 교회와 목사님들과의 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한규 / 김혜경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바두이 종족

▲ 인구 약 20,000명

▲ 종교 이슬람교 99.98%, 복음화율 0.02%

▲ 복음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파일 반덴 지역의 리박에 사는 전통 순다 종족 공동체의 하나이다. 주로 농사를 지으며 과일과 야생꿀을 팔아 수입을 얻는다. 이슬람교를 신봉하지만, 불교, 힌두교의 영향도 받았다. 실제로는 전통 종교를 따라 조상신을 숭배하며 모든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 기도제목

- 1. 바두이 종족에게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나타나도록
2. 바두이어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3. 폐쇄적 문화의 영향으로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바두이 종족 사람들이 문화를 지키면서 공동체 발전도 균형 있게 해 나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베드로 진서 38

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아토피성 피부병이 있었는데 웬 제약이 그렇게 많은지 육류만 아니라 알러지 때문에 콩 종류도 먹지 못했다. 어느 날 땅콩버터가 붙은 과자를 먹

고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 그렇다고 식탁에 큰 아들도 있으니 둘째에게만 맞출 수는 없었다. 그렇게 식탁 준비가 힘이 들었다.



고 크게 혼이 났었다. 그러나 내외가 얼마나 피곤한지. 전혀 안 먹이지나 몸이 허약할 것이

하루는 목사님 내외가 큰마음을 먹고 둘째를 데리고 햄버거 집에 가서 작은 햄버거 하나

잊어버리는 감격



김경진 목사 (발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를 사 먹었다. 한 입, 두 입 베어 먹더니 갑자기 사모님을 보고 "엄마, 참 맛있다."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꼬마는 햄버거나 양념이 된 고기 종류를 거의 먹지 못했기에 그 날 먹는 햄버거가 그렇게 맛이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찡했다. 우리는 햄버거가 크니 작으니 뭐가 들어갔는지 맛이 왜 이러냐? 하고 말하기는 쉬우나 한 입 베어 물어 참 맛있다. 감사하다 느끼며 먹은 적이 있었는가? 으레 당연한 듯 그렇게 먹고 마셨지 않는

가. 병 없는 것도 감사하고 당당히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한 입 아니라 두 입을 베어 물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늘 그럴 수가 없지요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순간순간 감사의 순간 감격의 순간은 있었는가? 어떻게 하든 금년에는 물론 잔 마시고도 감사하자.

revpeterk@hotmail.com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2.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3. 논문제출: 현대 시대의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이다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통진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권혁천 목사
서기: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전통진 목사

신앙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꿈의 끝에서 만난 공허함,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 타데우스 윌리엄스

이지은 사모 (뉴욕 그리스도 교회)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가 두 번 쯤 울리면 나는 어김없이 일어나 온 집안이 잠든 중요한 시간 속에서 나만의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하루 중 나만을 위한 유일한 시간이었다. 하루 종일 사역에 바쁜 남편과 아직 어린 아들을 돌보며, 이민자로서 도움을 줄 어른 하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그런 나에게 새벽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얻기 위해 나는 언제나 잠을 줄이며 일어났다. 이 시간은 내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며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왔다. 2015년, 남편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만삭이었다. 두 개의 캐리어와 300만 원의 현금을 캐리어 깊숙이 넣고 막막한 이민자의 길을

시작했다. 남편은 작은 한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사례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조차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없었던 그 시절, 나는 길에서 나는 갈비 냄새를 맡으며, '이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 말을 할 때쯤이면 우리도 저 갈비를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사례비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눌렀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은 나를 새벽 4시 반마다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책을 펼치고 영어를 공부하며, 대학원 입학 원서를 작성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유일한 시간이었기에, 잠이

부족한 아기 수면 교육 시기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치열하게 노력했고, 2년 후 마침내 교육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따 뉴욕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첫 출근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아이는 이제 곧 아홉 살이 되고, 남편은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야 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갈비를 기꺼이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여건도 갖추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고, 그 끝없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나는 여전히 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피곤한 나를 보며 나는 문득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아내로서, 교사로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바지하는 것이 남편의 목회를 돕는 길이고, 그렇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리 힘들고 지칠까? 나는 왜 이토록 공허한가?

처음에는 내가 직접 사역을 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신학교를 졸업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안수까지 받았지만, 남편의 뒤에서 사모로만 지내며 나의 소명을 다하지 못해 그런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나는 2021년 여름, 미 육군 예비군 군목으로 임명해 내 사역을 시작했다. 세 달의 긴 훈련 후, 나는 교사 일과 병행하며 한 달에 한 번 한 주말과 이 주 여름 훈련 기간 동안 군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왔다. 군목으로서의 역할은 분명 귀하고 큰 보람이었지만, 내 일상이 겹겹히 쌓인 해야 할 일들로 채워지면서 점점 더 지쳐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읽게 된 타데우스 윌리엄스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는 내가 이민자로서 느꼈던 압박과 그로 인해 나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해 온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다. 돌아보면, 나는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다. 나와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더 큰 성취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민자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군목으로서 나는 그 모든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싶었다. 이 압박은 나를 끊임없이 몰아세

웠고 나를 혹사시켰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주중에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꾸렸다. 주말과 훈련 기간에는 군인들을 돌보고 남편의 사역도 도왔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도 몇 시간을 못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나의 자아 성취와 이민자로서의 성공을 목표로 달려왔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윌리엄스는 이 지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자아를 숭배하면 경외심을 잃고 공허해진다"는 그의 경고는 나를 강하게 흔들었다. 자아 성취에 몰두하면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이민자로서 더 많은 성취를 통해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믿음은 나를 오히려 옭매고 있었다. 자아를 중심에 두고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지치고 공허했다. 특히나 윌리엄스가 언급한 "변덕스러운 마음"에 대한 경고는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더 큰 성취를 요구하며, 내가 이뤄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했다. 나는 내 꿈을 이루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지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한다. 나는 그동안 육신의 일, 즉 나의 성취와 성공에만 집중해왔다. 나의 모든 노력이 내가 이를 성과와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몰두해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자아 성취의 목표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목적을 바라보게 되었다. 윌리엄스의 책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자아 성취에 있지 않음을 일깨워 주었다.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왔지만,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윌리엄스는 우리가 자아 중심적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의 자유와 평안은 더 많은 성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삶 속에서 비로소 찾아온다. 이제 나는 내 자아 성취를 위해 달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모로서, 교사로서, 군목으로서의 모든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인정하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로 했다. 자아 성취는 나를 옭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simplegianna@gmail.com

기/도/칼/럼

전화위복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황금기에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미국 우선주의'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라는 동일한 슬로건으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고령의 대통령이 되었

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애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장에 최강국이 될 것처럼 흥분하고 희망에 부풀어있습니다. 경제회복, 국경보안, 군사력 강화, 관세부과에 관한 수많은 행정명령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습니다.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관광객은 줄어든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투자자는 떠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가 혼란을 부추기고, 언론보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민심이 점점 양분화되고, 세대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망망대해에 고장 난 나침반을 지닌

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바울처럼 "안심하라"라고 믿음으로 희망을 외쳐야 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276명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갈팡질팡하며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바울은 일어나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행 27:25,26) 결국, 희망을 선포한대로 멜리데, 몰타섬에 도착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멜리데섬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은 있습니다. 절망하는 대신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화가 복이 되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신명기 23:5) bible66@gmail.com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Features a family photo, a list of medical services (e.g.,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and contact information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Flushing, NY 11354). Includes the slogan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